

## 유전체 기반 한우 암소 개량 본격화... 전국 우수암소 2천두 선정

- 씨수소 넘어 암소까지...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 체계 확대
- 전국 단위 유전체 분석으로 우량 한우 암소 2천두 발굴·활용
- 암소 유전능력 조기 평가로 개량 효율성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암소 2천두를 전국 단위로 최종 선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하여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작년부턴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유전체 분석 정보를 국가 단위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전국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선발은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체계를 암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우량 암소를 조기에 발굴하여 개량 성과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선발은 국가 단위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유전체 분석 완료 암소 22만여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을 종합 반영한 선발지수를 활용하여 유전체 유전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국 1,021호 농가 및 기관의 우량암소 2천두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북(488두), 전남(342두), 경북(304두), 충남(297두) 등의 순으로 우량암소가 많이 선발되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량암소가 선발되어 유전체 기반 지역 단위 암소 개량 기반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별로는 우량암소 1~5두를 보유한 농가가 947호로 가장 많았으며, 10두 이상 보유한 농가도 18호로 나타났다. 최대 보유 농가는 우량암소 68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가 간 개량 수준 차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량암소 구간별 농가수: (1~5두) 974호, (6~9두) 29호, (10두 이상) 18호

이번에 선발된 우량암소는 우수한 유전형질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차를 늘려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향후 수정란 생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암소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시장 표시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암소 유전체 분석이 확대되면 어린 월령에서도 유전능력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 농가의 계획교배, 우수 개체 선발 및 저능력 개체 도태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우 개량 효율성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유전체 기반 한우 씨수소 조기 선발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씨수소 선발 기간을 1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개량체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암소 분야까지 유전체 기반 개량을 확대하여 한우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우량암소 선발은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체계를 암소 분야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농가에서도 유전체 분석 결과를 계획교배와 우수 암소 선발, 저능력 개체 도태 등에 적극 활용하여 한우 개량 효과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신소연 (044-201-234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책임자	과 장	박병호 (041-580-3310)
		담당자	연구관	홍준기 (041-580-3358)

